

봉사활동의 참뜻을 깨달으며

오성고등학교 1학년 송승호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는 웃음을 주섬주섬 숨겨내입는다. 친구들을 몰래 다니다기 시작한 노인 병원 봉사활동을 가야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친

대에 더 누워 있고만 싶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봉사활동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봉사활동이 주는 그 묘한 즐거움을 깨달은 지금은 오히려 아침에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것이 더 즐겁다.

노인병원 봉사활동은 누나의 조언으로 가기 시작하였다. 계으르며다 남을 돕는 일이라곤 조금도 모르면 내게 이 봉사활동을 추천해주었다. 이 일을 통해 꼭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대한 충고의 말과 함께 말이다.

내가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한 곳은 치매병동이었다. 처음 병동에 들어갔을 때는 덜컥 겁이 났다. 왜냐하면 내가 치매에 관해서는 TV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단편적인 지식과 책에서 본 몇몇 치매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간혹 인식하는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치매병동 어르신들을 보고 얘기하자 그러한 두마음은 금세 사라졌다. 나와 마주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의 모습은 책에서만 보던 괴팍한 노인의 얼굴이 아닌 너무나도 순수하고 맑으면서도 때로는 자상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과의 첫 대면과 인사 후 처음으로 할 일

이 주어졌다. 바로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를 돕는 것이었다. 잔에도 장예우들을 돕는 시점에서 식사를 도와준 적이 있어 별로 어려웠어지는 않았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 곧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되었다. 방금까지도 친절하게 대해 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갑자기 식사하기를 거부하신 것이었다.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일부러 뱉으시거나 흘리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음식을 먹어드리는 친구에게 호통을 치시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오히려 조용히 식사를 물리시는 어르신들께 감사할 정도였다. 결국 한 어르신의 식사 때문에 도울 수 없었지만 나를 비롯한 마음을 가졌다.

그 밖에도 어르신들이 주무시는 병동을 청소한다거나 어르신들이 지루해 하시지 않도록 그 분들이 타고 계시는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다. 일 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학교생활에 지쳐, 주말의 아침 단잠을 못 이겨서, 중간에도 몇 번씩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노인병원을 찾아와 어르신들을 볼 때의 즐거움과 마치 자신의 자식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웃음은 다시금 노인병원을 찾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

나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봉사활동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불행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것은 단지 부유한 이들의 능력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최고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노인병원을 다닐으로써 물질적인 도움만이 최고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교감되는 것이 진정한 봉사활동임을 깨달아가는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책 속의 삶이 있다

우리 할머니는 나를 모릅니다



자크 드레이션 (지은이), 안느 베스테르다인(그림)
이상희 (옮긴이) | 웅진주니어(출판사)

치매로 기억 장애를 겪고 있는 할머니와 할머니를 찾아가는 딸과 손녀까지 삼대의 모습이 담겨있다. 치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삶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아픔을 절제된 언어로 그려내고 있다. 간결한 이야기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뜨거운 사랑은 목격한 감동을 전하여 우리의 삶과 소중한 가족을 돌아보게 한다.

어린 페브라는 기차를 타고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 가는 동안 내내 엄마는 아무 말도 없고, 페브라도 그 무거운 눈꺼풀로 그저 창밖만 바라본다. 요양원에 있는 언덕을 올라가며 창가에 앉은 할머니를 보고 손을 흔들지만, 할머니는 페브라를 쳐다보지 않는다.

은총 비누와 왁스 냄새가 나는 낯선고 조용한 보드를 지나 만난 할머니. 하지만 역시 알아보지 못한다. 어섯 살에 물에 빠져 죽은 엄마의 동생만큼 기억할 뿐이다. 명확하면 할머니의 기억 앞에서 가족은 무력하다. 하지만 이 다음을 기억할 수 있는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 가슴 아픈 현실을 통해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아름다운 동화.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백경철 (지은이) | 리더스북

한 시골 외과의사가 병원이라는 풍경을 통해 바라본 인생이야기. 경북 안동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은이가 각양각색의 인생에서 견져 올린 회담의 메시지를 들려준다. 시골의사의 눈을 통해 바라본 우리네 삶의 단면들을 진솔하게 그려낸다.

이 책에 묶인 이야기들은 지은이의 블로그에 연재되었던 것들이다. 아픔을 함께하며 동행했던 환자들의 일화를 통해 삶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순수한 기쁨을 보여주고자 했다. 본문 중간 중간에는 환자들과 병원과 내부의 모습을 담은 흑백사진이 실려 있다.

1권이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이 주로 다루었다면, 2권에서는 친구들과 선 후배 등 지은이가 의사라는 삶을 선택하면서 알게 된 소중한 인연들의 회로에약을 풀어낸다. 각각의 글은 생명에 대한 성찰, 자기반성과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